

2008 새해설계 ⑦

한국미술협회 포천시지부장 이경진

정치지향적 과업위주보다 마음으로 와 닿는 지원 기대

찾아가는 전시회 · 방호벽 그림그리기 지역에 기여하는 단체

2007년 주요사업실적으로 한국미술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경진)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지역 미술작품에 대한 시민의 관심제고를 위해 포천현대미술제 누드전을 개최했다.

누드라는 모티프를 통해 현대 생활 속에서 정신적인 여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과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예술작품을 배경 삼아 과감한 전시를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벤트성 행사로 미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산지수명미술실기대회를 지역의 부모와 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인근 시군과의 교류전으로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소속 각 지부에서 지부장을 포함한 5명의 작품을 초대해 자연사립미술의 어울림전을 개최하기도 했으며 포천미술 회원들의 정기회 원전도 개최했다. 정기회원전에는 자매도시인 서울시 노원구 작가들을 초대했으며 올해는 외국 자매도시인 중국 회복시의 작가도 초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는 미술인의 밤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참가하는 회원들이 자비를 부담하여 송년의 밤을 개최한 것이다. 한양갑비,

삼성디지털프라자 등의 도움을 받아 경품도 마련했다.

한국미술협회 포천시지부 이경진(52·사진) 지부장은 "올해 사업도 지난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는 불우시절을 찾아가는 전시회를 계획하는 등 지역에 기여하는 미술협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며 오는 3월29일 토요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4월20일에는 남이섬에서 20여명의 임원이 워크숍을 가질 계획이다.

2007년2월14일 지부장으로 취임한 이 지부장은 포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 "생각보다 전문성과 의식이 부족하지만 회원들의 아주 순수하고 열매에 의해서 사회가 주도되는 현상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이 지부장은 먼저 관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관계공무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포천지역은 면적이 커서 전시장까지 나오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찾아가는 미술관을 운영해 노인정이나 경로당, 마을회

관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야 한다.

그림에 대해 친숙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이 작품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실질적인 재정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정치지향적 과업위주보다는 마음으로 와 닿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포천시는 미술작품 구입에도 인색하다. 포천시가 1년에 구입하는 미술작품 구입비는 20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 지부장은 취임당시 취임사를 통해 "미협개혁과 미술인 화합을 통해 포천미협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포천미협의 대내외 위상제고와 회원 권익 보호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다양한 기획과 행사로 회원들이 협회에 자긍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미술위원회 설치, 공모전 사업 추진, 포천미술대상 제정, 포천아시아비엔날레 주최, 포천아시아비엔날레 주최, 포천시 기업메세나협회의 구성 등 청사진을 밝히고 포천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포천미술대상 수상자에게 별도로



개인전을 지원하는 등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지부장의 이같은 포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천시나 포천 시민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지부장은 방호벽 그림그리기와 찾아가는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에 기여하는 미협으로 성장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협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부장은 미술장식품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더 많이 선정되기를 바라고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심사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작가 3명이 선정되도록 역할을 하기도 했다.

포천신문이 지역미술인들의 활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알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며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95

청탁하지 않았더라면 벼슬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후백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큰아버지 집에서 자랐다. 그는 1535년(중종 30) 향시(鄕試)에서 장원하고 곧 상경하여 여러 선비를 찾아다니며 학문을 익혔다.

그가 벼슬길에 오르기 전이었다. 하루는 관찰사 행렬이 지나가는데 차컷 행렬 안으로 뛰어 들었다가 관아에 끌려간 적이 있었다. 이후백은 관아에 끌려가자 자못 선비 흉내를 냈다.

"저는 공부하는 유생입니다. 실수로 행차를 범했으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가 이후백을 훑어보더니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물었다.

"공부하는 유생이 아니라 내가 운(運)을 불러주면 능히 시를 지을 수 있겠는가?"

"미천한 재주이나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이윽고 관찰사가 운을 불러 주자 이후백이 단번에 시를 지었다.

끓어진 다리에 해 비끼니 동인지 서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얼굴을 때리는 모래먼지 북풍에 쓸려가도다.

자칫 관찰사의 행차를 범했으니 후회하지 않으니, 옛 당나라 시인 가도(賈島)도 이로 말미암아



리효중 한국한시협회 포천시회장

대문장가 한유(韓愈)를 알게 되었네. 관찰사는 이 시를 읽고 크게 기뻐하여 마침내 서로 친하게 지냈다.

이후백이 이조판서로 있을 때 인사청탁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름이 높았다. 비록 친구라 할지라도 자주 찾아가면 싫어하였다.

하루는 친척이 찾아와 은근히 청탁하였다. 그러자 이후백은 얼굴빛을 고치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종이 한 장을 보여주었다.

장차 벼슬할 사람들의 이름이었는데, 마침 그 친척의 이름도 들어 있었다.

"내가 자네 이름을 기록하여 장차 벼슬에 천거하려 했더니 지금 자네가 나에게 청탁을 하니, 만일 자네가 관직에 오르면 도리가 아니네. 안됐구나. 자네

가 만일 청탁하지 않았더라면 벼슬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친척은 부끄러워하며 돌아갔다.

이후백은 하나의 벼슬을 시키더라도 꼭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모두 탐문한 후 뽑았다. 만일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썼을 때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한다.

"내가 국사를 그르쳤다!"

이후백(李後白) 1520년(중종 15) ~ 1578년(선조 11).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계진(季眞) 호는 청린(靑蓮)이다. 1546년(명종 1) 사마시에 합격하고, 1555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주서를 거쳐 1558년 승문원 박사가 되었다. 그 후 여러 벼슬을 거쳐 선조 때 대사간과 도승지를 지냈다.

1571년 정시문과에 장원한 후 1574년 형조판서가 되고 다음해 평안도 관찰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그 후 이조판서를 지내고 곧 호조판서가 되었는데 휴가를 얻어 함안에 성묘를 갔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청백리로 뽐냈으며,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예/술/칼/럼

눈물의 미학

바람은 산등성을 타고 온다. 신작로를 따라 걸어오고 역새풀에 살을 벗고 놀다가도 간다. 바람은 불꽃인 옷을 입는다. 지금 밖에는 꽃바람이 분주하다. 꽃과도 친한 바람이 꽃신을 신고 울러나 보라. 여인의 숲속에 날을 세운 치맛바람이 마음을 날칼만 지 모르겠다.

눈물의 액세서리는 무지개요. 눈물은 깨끗한 무공해 식단이며, 눈물은 신이 선물한 그윽한 와인이며, 눈물의 또 다른 처음 맛은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는 분홍빛 섹스다.

눈물의 예술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얀 백지에 양심을 그리는 것이다. 사람이들이 하는 종합예술이라면 눈물은 혼자 부르는 아리아(aria)다. 때론 눈물 짓은 뺨이 쓰지만 단 이유가 거기에 있다.

꽃은 온몸으로 웃다가 울기도 하지만 사람은 눈으로 우는 척 가슴으로 운다. 울리는 눈물보다 삼키는 눈물이 더 애절하고 아리운 일들이 그뿐이겠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움에 대한 가장 좋은 찬사는 눈물이다. 누군가가 '눈물이 아름답다' 하지 않았는가. 눈물은 그 향기와 맛깔이 내려 쟁는 절구에서 나오기에 그렇다.

며칠 전 꽃바람을 만나러 운전차에 갔다. 부소천 벼들개지를 꾸밀까 하다가 양지바른 뒷밭에 꽃다지를 먼저 범했다. 함께 걸

편한 진실이 있다. 그러나 눈물은 정직하다. 연기자의 눈물도 이미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또 눈물은 지나간 과거를 현재로 질문하는 가시며, 미래의 꿈을 따는 편이다.

초원을 달리는 동물의 눈물은 땅으로 떨어져 거름이 되고, 사람의 눈물은 종종 하늘로 떨어져 기도가 된다.

또한 동물은 때를 지어 살다가 혼자 울지만, 사람은 홀로 울며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고 눈물은 흘러 사람의 웃김으로 가는 법이다. 눈물은 신비한 샘에서 솟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 깊은 가슴에서 떨어지는 이슬이며 무늬의 예술이다.

눈물은 이별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이자 아침을 약속하는 위대한 예술이다.

그래서 눈물방울은 작은 우주며 항상 희망이라는 그릇에 고인다.

오늘도 눈물 속에는 은어가 살며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

그것이 바로 눈물의 예술이며 미학이 아닐까.

눈물보다 설득력이 강한 언어는 없다. 눈물은 에너지가 아니라 메시징이다. 더러 세상에는 불

편한 진실이 있다. 그러나 눈물은 정직하다. 연기자의 눈물도 이미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또 눈물은 지나간 과거를 현재로 질문하는 가시며, 미래의 꿈을 따는 편이다.

초원을 달리는 동물의 눈물은 땅으로 떨어져 거름이 되고, 사람의 눈물은 종종 하늘로 떨어져 기도가 된다.

또한 동물은 때를 지어 살다가 혼자 울지만, 사람은 홀로 울며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고 눈물은 흘러 사람의 웃김으로 가는 법이다. 눈물은 신비한 샘에서 솟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 깊은 가슴에서 떨어지는 이슬이며 무늬의 예술이다.

눈물은 이별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이자 아침을 약속하는 위대한 예술이다.

그래서 눈물방울은 작은 우주며 항상 희망이라는 그릇에 고인다.

오늘도 눈물 속에는 은어가 살며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

그것이 바로 눈물의 예술이며 미학이 아닐까.

눈물보다 설득력이 강한 언어는 없다. 눈물은 에너지가 아니라 메시징이다. 더러 세상에는 불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주간

뮤지컬 이야기

일생을 미화시킨 뮤지컬 전기(傳記) 영화

194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뮤지컬 전기영화들은 마치 뮤지컬 리뷰(Revue)처럼 드라마의 짜임새가 부족했다. 인물보다는 음악 혹은 노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주인공의 생애는 얼기설기 엮어서 연대순으로 나열하기만 했는데 멜로적으로 감상적인 스타일들의 영화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빈약한 줄거리와 신과적인 대사 등과 함께 감추고 싶은 이야기는 허구로 꾸며져 실제 생애와는 커다란 차이점을 보였다. 반면에 알 졸슨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영화는 줄거리가 탄탄하며 대부분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는데 부분적으로 허구가 가미되기는 했지만 영화의 완성도나 재미적인 면에서 성공적인 뮤지컬로 평가된다.

졸슨의 전반기 일생을 다루고 있는 <더 졸슨 스토리(The Jolson Story, 1946, Columbia)>는 1940년대 뮤지컬 영화의 수작으로 꼽힌다. 그해 3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엄청난 관객수입을 올린 <더 졸슨 스토리(The Jolson Story)>는 뮤지컬 리뷰 시대의 공연 스타일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영화 속을 채워져 있어 더욱 흥미를 주고 있다. 이 영화는 처음에 흑백영화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초반 촬영된 영화의 단편들을 보고 좋은 인상을 받은 컬럼비아 영화사 사장은 컬러영화로 만들 것을 지시하여 처음부터 다시 컬러로 촬영되었으며 훨씬 다채로운 화면으로 탈바꿈되었다. 1940년대

다른 뮤지컬 전기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더 졸슨 스토리(The Jolson Story)>와 졸슨의 후반기 일생을 다룬 <졸슨 씽스 어게인(Jolson Sings Again, 1949, Columbia)>도 상당수 장면들이 미화되어 있다.

먼저 <더 졸슨 스토리(The Jolson Story)>의 초반을 흥미롭게 장식하는 어린 알 졸슨의 일화는 허구이다. 대중가수가 되고 싶어 매주 극장을 찾아 공연을 빠짐없이 보는 어린 알 졸슨은 공연을 보느라 아버지가 랍비로 있는 교회 성가대에 항상 늦어 걱정을 끼친다. 그 극장에서 알 졸슨은 평생의 매니저를 만나게 되는데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영화의 도입부는 매우 흥미롭지만 졸슨이 어린 시절부터 가수로 노래를 불렀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살아서 졸슨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데 졸슨의 어머니는 사실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졸슨은 누이의 손에서 키워졌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가슴 속에 어머니에 대한 짧은 기억과 사랑을 품고서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했기 때문인지 알 졸슨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재즈 심어>와 <더 졸슨 스토리>에서 반 촬영된 영화의 단편들을 보고 좋은 인상을 받은 컬럼비아 영화사 사장은 컬러영화로 만들 것을 지시하여 처음부터 다시 컬러로 촬영되었으며 훨씬 다채로운 화면으로 탈바꿈되었다. 1940년대

를 했던 유일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영화 속에서의 가장 큰 허구는 결혼에 관한 것이다. 영화에서는 졸슨이 단 두 번 결혼한 걸로 나온다. 첫 번째 부인은 배우였고 두 번째 부인은 간호사다. 그렇지만 사실 졸슨은 평생에 네 번 결혼했으며 극중 배우로 나오는 첫 번째 부인은 루비 킬러(Ruby Keeler, 1910 ~ 1993)로 그의 세 번째 부인이었다. 루비 킬러가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극중에서는 줄리 벤슨으로 나오는데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4년이나 되었고 결혼생활은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영화에서처럼 알 졸슨은 가정보다는 무비스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만 루비 킬러는 조용한 삶을 원했다. 물론 루비 킬러도 결혼 후엔 뮤지컬 영화 <42번가(42nd Street)>로 대스타가 되었지만 항상 남편과 은퇴해서 편안한 가정 생활을 즐기기를 원했다. 이들 생각의 차이는 이미 두 번의 결혼을 실패한 졸슨의 문제점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알 졸슨은 11년이 지난 1940년에 이혼으로 이어졌고 다음 해 루비 킬러는 재혼하면서 자신이 바리던 영화를 하게 되고 이후 여러 명의 아이를 낳게 된다. <더 졸슨 스토리(The Jolson Story)>와 <졸슨 씽스 어게인(Jolson Sings Again)>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소재로 한 영화이기 때문인지 영화 곳곳에

실제 인물들을 상당히 배려한 흔적이 보인다. 루비 킬러와의 관계도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묘사되었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과정도 이미지 손상이 담당하게 그려졌다.

뮤지컬 영화 <더 졸슨 스토리(The Jolson Story)>가 1946년 개봉된 이래 알 졸슨은 또 한 번 스타덤에 오르고 죽기 전 몇 년 동안 음반판매 호조와 함께 콘서트,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등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영화 속에서 알 졸슨은 알 졸슨 자신이 한 번 등장한다. 흑인 분장을 한 알 졸슨이 <스와니(Swanee)>라는 노래를 부르며 직접 자신을 연기하는 것이 통찰으로 잡혀 있어 흥미롭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알 졸슨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을 통해서 가장 불운했던 사람은 알 졸슨 역을 맡았던 래리 파크스(Larry Parks)였다. 워낙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유명한 인물을 연기해서 인지 본인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이후부터 어떤 작품에서도 돋보이는 연기를 하지 못했으며 1951년 비미국영화 조사회위원회 소환된 이후 빠르게 잊혀진 배우가 되었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30)

요한 이벽

포천의 최초의 천주교 세례교인이 바로 요한 이벽 이라면 여러분은 놀랄 것이다. 요한 이벽(영조30년-1754년 ~ 정조 10년-1786년)은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경주이고 본명은 덕조 호는 광암, 만천이다.

요한은 남의 세례명이다. 성호 이익의 문인으로 일찍이 주자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새로운 사상과 학문을 모색하던 중 청나라로부터 유입된 서양 학문을 탐독했으며 중국의 실학자 서광계,

이치조 등이 저술한 방대한 내용의 학문서를 연구했다.

성서를 연구해 일가를 이룬만 성 기독교와 천주교의 학문적 연구가 깊게 되었다. 정조3년(1779년) 권철신 형제, 정약용 형제 등 기호지방의 남인들과 경기도 광주의 주어사에서 실학적인 인식의 깊이를 쌓고 새로운 윤리관을 모색할 목적으로 감학회를 열었다. 천주교 교리를 탐구하고 신앙을 실천하여 천주공경가를 지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세례를 받

고 포교를 시작한 이승훈에게도 천주교리를 전해 주었다. 정종 8년(1784년) 이승훈이 서장관으로 청국에 갈 때 카톨릭 영세를 받고 있을 것을 부탁하자 이승훈이 돌아올 때 성서와 성수를 갖고 귀국하자 이벽은 그에게서 영세를 받고 세례명을 요한이라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천주교 선교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하였다. 정약용 형제, 권철신 형제, 김범주 형제를 천주교에 입교시키고 선교활동에 정진하였다.

이때 카톨릭에 대한 아버지의

결사적인 반대로 심한 갈등을 겪던 중 최초의 천주교 박해사건인 을사추조적발사건에 연루되어 첫 순교자로 순교하였다.

이벽은 당시 사회적, 정치적 풍토와 병폐를 직관하고 인신양명과 부귀영화를 버리고 학문정신으로 사상과 학문 실천운동으로 일관하며 평생을 살았다. 또한 한국 천주교 사상의 최초 연구자였으며 학자이자 실천운동가였다는 점에서 천주교 사상 길이 빛나는 주춧돌 같은 성인이라고 볼 수 있다. 순교 후, 화현리 산 289번지에 안장되었다.

1959년에 순교후 묘지를 찾아(1979년) 광주 퇴촌면 천지암 천주교 묘지에 이장하였다고 한다. 변기웅 신부의 노력이 컸다 한다. 유적으로는 만천유교가 남아있어 남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儒道復興(유도부흥)



최종규 포천명유회 회장

復興儒道我邦成(부흥유도아방성) 禮義信知育後生(예의신지육후생) 유도부흥을 우리나라에서 이루고 예의와 신의로서 후생을 기르나니

忠孝精神天下振(충효정신천하진) 修齊思想海東明(수제사상해동명) 충효정신은 천하에 빛이 나고 수제사상은 해동을 밝히려라

治民功績千秋赫(치민공적천추혁) 濟世經倫萬古聲(제세경윤만고성) 백성을 다스리는 공적은 오래도록 빛이 나고 세상을 구제할만한 역량과 포부는 만고에 길이리라

是地名文詩客夢(시지명문시객몽) 秉彝猶在故鄉情(병이유재고향정) 이땅에서 잘 지어지는 글은 시객들의 꿈이며 항상 도를 굳게 지키고 있음은 고향의 정이다.